

# 광주 시내버스 노사 임금협상 잠정 합의

난항을 겪어 왔던 광주지역 시내버스 노사 임금협상이 2차 조정 끝에 잠정 합의됐다.

17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 회사측 대표와 광주시내버스 노조 대표들은 지난 16일 광주지방노동위원회 2차 조정에서 임금협상에 잠정합의했다.

잠정합의안은 ▲통상임금 3.8% 인상 ▲호봉제 10호봉 신설(기존 9호봉) ▲대형버스 운전원 정년 61세로 연장(기존 60세), ▲중형버스 근무제 1일 2교대 전환(기존 격일제)

## 통상임금 3.8% 인상 등 5개 항 합의 2차 조정 4개월 마라톤 협상 마무리

▲무사고수당 5000원 인상 등이 주요 골자다. 노조측이 요구해 왔던 중형버스 근로자 계약 기간 1년 주기에서 65세까지 무기계약 보장 건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조측은 통상임금 10% 인상안에서 한 발 물러서 3.8% 인상안을 수

용하는 대신, 10호봉 신설이나 정년 연장 등을 이끌어 낸 것으로 풀이된다. 광주지역 시내버스 노사는 지난 1월16일부터 임금협상을 시작해 4개월여 동안 마라톤 협상을 벌이며 진통을 빚었다. 지난달 25일 노사간 입장차로 임

금협상이 결렬되면서 광주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으며 1차 조정은 무산됐다.

이번 2차 조정 끝에 잠정합의를 이끌어내 당초 우려했던 시내버스 파업사태는 피하게 됐다.

광주시내버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18일께 최종합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광주지역 시내버스는 10개 회사 999대가 운행중이다.

서은홍 기자

## 머서 불펜형 전자담배 폭발, 사망자 거의 불타

지난 5일 플로리다주 피터스버그에서 사망한 톨마지 디엘리아(38)란 남성의 시신의 부검 결과 그는 피우던 전자담배가 폭발하면서 파편들이 머리에 박혀 사망했고, 이 파편들이 불을 내면서 시신 대부분이 불탄 것이란

는 검시보고서가 나왔다. 15일 발표된 피넬라스 파스코 검시관의 부검 보고서에는 사망 원인은 디엘리아가 피우던 전자담배 탓이라고 명시되었다. 하지만 이런 사고는 전대미문의 특이한 경우는 아니다.

미국 소방청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에서 2016년 사이에 전자담배가 폭발하거나 불이 붙는 사고는 최소 195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사망자는 없었고 133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그 중 38명은 중상이었다.

현지 신문 탐과 베이 타임스에 따르면 소방대는 디엘리아를 그의 화재가 난 집 안에서 발견했다. 소방관들은 특히 디엘리아의 집이 가장 "광범위한" 화재 피해를 입은 것을 알았지만 연기는 별로 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검시 결과 디엘리아의 두개골 안에서 전자담배 파편 두 개가 발견되어 사망원인은 "발사체로 인한 머리 부상"으로 기록되었다. 그 뿐 아니라 전신의 80%가 화상을 입은 것으로 판정돼 사고사로 결론이 내려졌다.

문제의 전자 담배는 필리핀에 본사를 둔 스톱모크E 마운틴이란 제품이였다. 하지만 이 회사 대표는 WFIS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기에 제품은 폭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따라서 폭발은 사용자가 입에 물게되는 분무장치나 원래 위험도가 있는 배터리가 원인일 것이라며, 사망자가 사용한 전자담배의 사진을 보여달라고 그는 요구했다.

미 식약청은 일부 전자담배들이 폭발하고 있는 원인은 아직도 분명치 않으며, 아마도 배터리와 관련된 사고들일 것 같다고 말하고 있다.

## 멕시코 남부 5.2 지진...멕시코시티 대피 소동

멕시코 남부에서 16일(현지시간) 오전 규모 5.2의 지진이 발생해 수도 멕시코시티에서도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멕시코 국립지진센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0분께 남서부 계곡로 주에서 규모 5.2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진 규모는 5.3으로 측정됐다가 5.2로 하향조정됐다.

미 지질조사국(USGS)은 이번 지진 규모를 4.9로, 진원의 깊이는 81.2km로 측정했다.

이날 지진으로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지진 대피 경보가 울려 많은 시민들이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밖에 옥사카주, 이달고주, 모렐로스주 등 지역에서도 진동이 감지됐지만 인명 피해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멕시코는 '불의 고리'라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해 지진이 잦은 국가다.

멕시코에서는 지난해 9월 7일 8.2의 강진으로 96명이 숨졌고, 이어 9월 19일에도 7.1의 지진으로 369명이 목숨을 잃었다.

## 중관광객들, 베트남서 '중국땅' 티셔츠 차림

베트남을 찾은 중국 관광객들이 영토 분쟁 중인 남중국해의 섬들을 중국의 영토로 표시한 티셔츠를 입고 입국해 베트남 국민들의 분노를 촉발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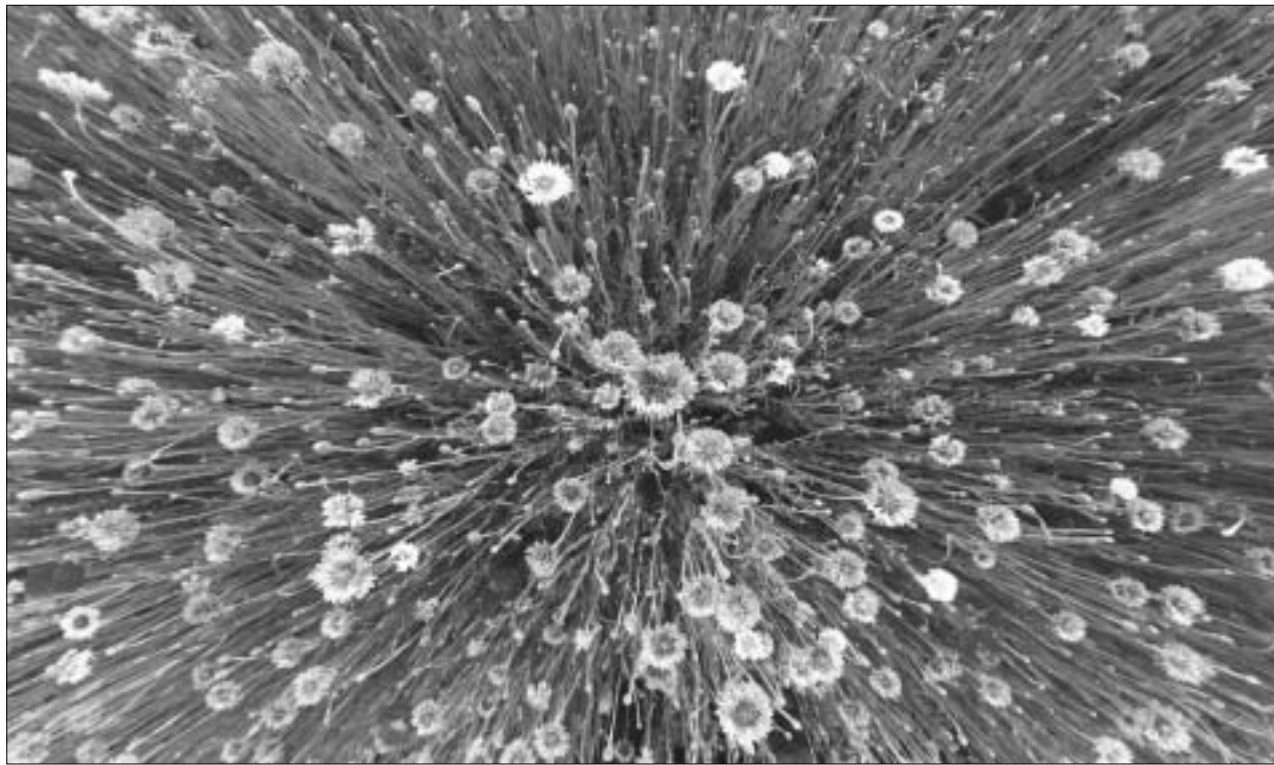
지난 13일 밤 갑판 국제공항에 도착한 중국 관광객들이 남중국해의 거의 모든 섬들을 중국의 영토로 구분한 남해구단선(南海九段線)이 표기된 티셔츠 차림으로 입국하려다 입국 심사 과정에서 베트남 직원들에 의해 저지당했다.

베트남은 남중국해의 섬들을 놓고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입국 심사 직원들은 중국 관광객들의 입국을 지연시키며 티셔츠를 벗을 것을 요구했다.

국영 푸오이제 신문은 베트남 당국이 이 티셔츠들을 압류했다고 전했다. 푸오이제 독자들은 웹사이트에 올린 댓글에서 이 같은 티셔츠를 입은 중국 관광객들을 추방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후인 판 님이라는 독자는 "이런 티셔츠를 입은 중국 관광객들을 즉각 추방하고 이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앞으로 베트남에 입국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베트남을 찾은 중국 관광객은 약 400만명에 달해 전체 외국 관광객의 약 30%를 차지했다.

베트남은 오래 전부터 중국과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으며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대만도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공작새처럼 화려한 수레국화와 개양귀비꽃 17일 경남 함양군 함양을 상림경관단지에서 활짝 핀 수레국화와 개양귀비꽃이 마치 공작새처럼 화려한 모습을 선보이고 있다.

## 전국 사찰 최근 5년간 262건 화재 발생 '주의'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오는 22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연등과 촛불 등 화기 취급이 늘면서 국민들에게 화재 발생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7일 행안부 등에 따르면 최근 5년(2012~2016년)간 사찰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262건이었다. 사망 1명, 부상 12명 등 1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발생 원인은 불씨·불꽃 방지 등 부주의가 94건(36%)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 접촉 불량이나 열화 등으로 인한 전기적 요인이 71건(27%)으로 나타났다.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도 63건(24%)이나 됐다.

전국의 2만7000여 불교 사찰 가운데 966개소가 민중문화 유산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전통사찰로 지정돼 있다.

또 국가지정문화재 현황을 살펴보면 목조와 종이 등이 옮겨 불기 쉽고 타기 쉬운 문화재 비율은 전체(4525건)의 31%(1413건)로 높은 편이다. 종교별 문화재 보유 현황을 보면 기도를 제외하고는 불교가 가장 많아 사찰 화재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부처님 오신 날 즈음에는 각종 불교 행사로 화기 취급이 증가하고 평소보다 많은 전기와 가스 사용으로 화재 위험이 높다. 특히 목조 건축물이 대부분인 전통사찰은 일반적인 화재 시 연소 확대가 매우 빠르게 진행된다.

연등을 달 때는 전선이 꼬이거나 눌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콘센트를 문어발처럼 꽂아 쓰면 과열돼 위험하니 단독 콘센트를 사용한다.

촛불이나 향불을 피울 때는 주변에 불이 옮겨 불기 쉬운 가연성 물질을 멀리하고 불을 켜 놓은 채 자리를 비우지 않는다.

뉴스스

## 노동계, "정부가 탄력근로제 조장 경약" 일제히 비판

노동계가 정부의 5·17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대책에 대해 부실 대책이라며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을 무력화시키는 탄력근로시간제를 조장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17일 논평을 통해 "이번 정부 대책은 제도시행에 눈앞에 둔 상황에서 기대에 못 미치고 새로운 것이 전혀 없는 대책"이라며 "기존에 있는 제도지만 지원수준이 낮아 활용도가 낮은 제도를 죽 열거하면서 그 안에다가 '실노동시간'이란 수식어를 써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한노총은 또 인건비 지원액과 임금보전 기간 3년 확대 등 세부 내용에 대해서도 "300인 미만 기업이 6개월 이상 노동시간단축을 조기 시행하는 경우와 500인 이하 제조업과 특례제의 업종에 국한된다는 까다

로운 조건이 붙어 활용도는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노총은 또 "특례업종 축소에 따른 사업차질, 버스운행 차질 등으로 교통대란이 우려되자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이 유연근로제와 탄력근로제 활용인데 이는 실 노동시간 단축 효과를 무력화 할 뿐만 아니라, 사측이 가산수당 부담을 줄이는 폭수로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의 '현장안착 지원 대책'은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온갖 폭수와 불법 권벌에 대한 실질적 대책이 아니라 행정 편의의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특히 실질적 노동시간 단축을 강제해야 할 정부가 특례제의 업종대책과 관련해 노동시간 단축을 무력화하는 제도로 응답할 수 없다"고 밝혔다.

뉴스스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정부 3.0

# 모두, 안녕하세요?

## 국가건강검진이 국민의 건강을 지킵니다

건강 IN  
건강한 정보, 건강한 생활

### 국가건강검진

#### '국가건강검진' 효과 비교

| 검진종류   | 건강진단 받지 않은 사람 | 건강진단 받은 사람 |
|--------|---------------|------------|
| 일반건강검진 | 42%p 감소       |            |
| 임검진    | 18%p 감소       |            |

※본말고는 건강진단이 총합치니, 미리 미리 건강 챙기세요.

보건복지부 | 콜센터 129 | h-welfare 국민건강보험 | 고객센터 1577-1000